



창세기를 통한 복음6

생명에 대하여

신구약을 합해서 '살아있는(living)' 또는 '생명(life)'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이런 빈도 수는 어느 역사책이나 종교서적과 구분될 만큼 높은 숫자이다. 마치 성경이 생명과학 교과서 같이 느껴질 정도다. 성경은 왜 이다지도 생명에 대하여 여러 번 사용할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길래...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일관된 방향을 보여주며,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함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 개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생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도 보게 된다.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표현은 동물이 창조되는 창조 닛새째 날에 처음 시작된다. “물들은 생물(living creatures)로 번성케 하라”(창 1:20)고 되어있다. 또한 동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breath of life)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living being)이 된 지라”(창 2:7)와 같이 인간에게도 생명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여기서 성경이 생명이라고 지칭할 때 일반적인 분류와는 사뭇 다름이 주목된다. 생물이란 단어를 동물과 사람에게는 적용했지만, 식물에게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생명에 대한 한정된 사용은 성경전체가 일관되게 유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물을 논하는 시작부터, 사람이 체제화하려는 생물 분류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생물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과학은 식물, 동물, 사람까지 모두 생물학의 범주로 포함시킨다. 이들은 모두 무생물과 달리 스스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질서해지며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양상은 물질과 에너지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이 법칙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결국 폐차되고, 시계는 정지하고, 건물도 부식된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들이 있다. 바로 식물, 동물, 사람이다. 이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성경에서 식물을 생물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말이 완전히 정당하지는 않지만 달리 대신할 표현이 없음으로 이 단어를 씀) 썩지도 않고 스스로 질서를 유지한다. 즉 살아있을 때만큼은 열역학 제2법칙의 ‘예외’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 과학자들은 동식물과 사람을 모두 생물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동식물과 사람같이 열역학 2법칙에 적용되지 않고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것을 “목적률(teleonomy)”라고 부른다. (목적률에 대하여는 Creation Truth 2013년 2월호 p. 4 최우성 박사의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어떤 것”이란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지는 짐작할 수 있어도 왜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아무튼 목적률이란 동식물과 사람에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무언가를 지칭한 것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목적률을 갖고 있는 것들을 생물로 분류시킨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분류 기준에 있어서 이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단지 질서만 유지시키는 목적률만 가졌다고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은 식물이 아닌 동물과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동물이 창조될 때 ‘살아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 엿볼 수 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회생 제물이 될 양



이 생명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노아홍수 직후에 인간에게 채식뿐 아니라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창 9:3-6). 즉 생명의 특징으로 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레위기에서 생명이 피에 있음이 훨씬 더 강조된다(17:11). 이 모두가 동물에 생명이 있다는 점을 성경전체가 일관되

게 유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의 대가로 동물이 제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즉 동물은 식물이 갖고 있는 목적물뿐 아니라 생명의 피를 함께 갖고 있는 존재다. 반면에 식물은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물은 갖고 있지만 성경이 의미하는 생명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식물은 생명이 없으므로 엄밀히 살아있는 것(life)도 아니고 죽음(death)도 없어서, 결국 생명을 대신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레위기에서 나오는 다섯 가지의 제사 가운데 곡물은 죄사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오직 감사의 표시인 소제(grain offering)로만 사용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동물과 식물은 여러 유사점이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한다. 분명히 겉보기에는 그렇다. 예를 들면 똑 같이 세포로 되어있고, 재생산되고, DNA도 있고, 유전법칙이 적용되고, 단백질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유사점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동식물 모두가 같은 공기, 같은 물, 같은 땅, 같은 지구환경에서 동일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은 동물과 사람의 음식이 되는 중요한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같은 물질로 되어있고,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된다는 것은 창조자의 특별한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창조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과 같이 같은 종류 안에서 재생산되도록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단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무튼 식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생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편 인간의 경우는 또 다르다.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물과 기존의 생명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창 2:7),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특별하고도 특별한 존재다(창 1:26-27). 그러므로 성경에서 생명을 사람과 함께 사용할 때는 단순히 동물의 생명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의미한다. 실제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며(시 36:9), 생명 자체시다(요 11:25; 14:6).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떠나게 되어 곧바로 죽음이 왔다. 우리의 생명은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인 자신의 피를 흘릴 만큼 귀하다. 동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피가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피는 성경 전체에서 속죄의 유일한 기준으로 제시된다(히 9:22; 레위기 4장). 무엇보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영원히 구원 받을 길이 생겼다(히 9:12; 10:12; 뱀전 1:19; 3:18; 4:1). 이 피는 동물이 갖고 있는 생명의 상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흠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혈(precious blood)이다!

그런데 과연 창세기 1-3장 없이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진화역사는 생존경쟁에 의해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어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며, 진짜 역사인 성경을 부정하도록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창조와 멸종을 반복시키셨다가 사람이 창조됐다고 말한다. 수많은 동물들이 생명의 상징인 피를 수 없이 흘리고 고통을 겪은 후에 또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

이어서는 글은 13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방주의 지적설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여 사람의 손을 통해 만든 인류최초의 대형 구조물이다. 과연 그 내용이 조선공학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소위 “고대인(ancient man)”의 머리에서 임의로 만들어 낸 신화(mythology)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방주에 관한 설계의 신뢰성만 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발되어온 모든 조선공학적 기술과 이론을 모두 집대성하여 노아홍수와 같은 거친 해상상태에서 살아남기위해 방주를 설계한다면 아마도 창세기에 기록된 장-폭-고 비율인 6:1:0.6 (150m-25m-15m; 규빗=45cm ~60cm인데 50cm를 사용했음)과 아주 근사한 비율이 될 것이다.

실제로1993년 한국의 선박연구소에서 용적은 같지만 장-폭-고 비율이 다른 13척의 방주형상의 모형을 만들어 큰 파도에서의 복원성 및 안정성을 실험한 적이 있었다. 방주의 무게 중심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마다 동일하게 가장 합리적인 두 위치 (중간높이 및 중간 높이보다 조금 낮은 위치)로 가정하고 각 경우마다 구조 안정성 (structural integrity), 복원 안정성 (stability against capsizing), 내항 안정성(survivability against waves)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노아의 방주와 같은 장-폭-고 비율이 종합적으

로 가장 우수한 설계임이 입증되었다. 만일, 폭이 너무 커지게 되면 복원성은 증가하나 내항성이 나빠지게 되며 외력이 또한 증가하여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폭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 외력은 감소하나 복원성과 구조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배의 건조에 대해 어떠한 지식도 경험도 없었던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최적의 설계로 배를 건조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답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다.

필자의 전공은 토목해양공학(civil/ocean engineering)이라서 예전부터 노아의 방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거친 해상상태에서 부유체의 거동과 안정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내었고 여러 실험으로 입증해 낸 후에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석유탐사및 생산 플랫폼을 설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컴퓨터 모델로 각 설계의 구조 안정성(structural integrity), 복원 안정성(stability against capsizing), 내항 안정성(survivability against waves)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해 낼 수 있다.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 중의 하나인 MPS(Moving Particle Simulation)라는 기법도 개발되었다. 고체(solid)와 유체(fluid)사이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컴퓨터 모델로 먼저 방주의 복원안정성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다. 사각형 바지(rectangular barge)의 단면이 어느 높이에서 떨어지며 물을 치고 들어가서 그 후에 어떻게 거동하는 지를 보는 것이다. 이는 매우 거친 해상에서 생존할 수 있겠나 없겠나의 척도로 볼 수 있겠다.

노아의 방주의 단면과 그 폭을 줄인 단면을 비교해 보았다. (여기에 동영상을 실을 수 없으므로 초기상태, 물로 치고 들어가 주위의 엄청난 물기둥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조금 지난 후의 상태 3컷을 실었다.) 방주의 단면은 엄청난 물결과 동요에서도 바로 안정성을 찾는 반면 그 폭을 줄인 단면은 같은 상황에서 안정성을 잃고 전복되어 버렸다. 즉, 부유체의 설계가 조금만 잘못 되어도 거친 해상 상태에서 살아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2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바로 성막과(노아의)방주이다.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스케일의 전지구적 홍수에서(구별된) 인간과 짐승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설계를 조명해 주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노아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편 33:9)



김무현 박사
해양 공학



유학생 교회 창조과학 세미나

지난 2월 이재만 선교사는 두 유학생 교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2월 15-17일 오클라호마 대학의 노만침례교회(담임목사 양연승), 2월 22-27일 퍼듀대학의 퍼듀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김택룡)에 각각 3일씩 인도했습니다. 두 교회 모두 유학생이 다수입니다.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는 유학생 시절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교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초청하는 계획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5차에 걸쳐 유학생 탐사여행이 매회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연장선으로 각 유학생 교회에서 세미나로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크리스천 리더를 키운다는 의미로 유학생에게 창

15차 유학생 탐사여행 장면



조과학 사역을 통해 성경의 사실됨이 빠르고 확실하게 전파되기를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만 선교사 한국방문

오는 3월 2-25일 이재만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한동대, 전주대를 비롯하여 동산고등학교,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생터 성경사역원과 이한교회, 안산순복음교회, 행복한교회, 평촌평성교회, 대전 온누리교회, 부천 온누리교회, 대구화원교회, 안동명동교회 등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한국방문 동안의 귀한 열매와 이재만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데스다 대학교 강의

최우성 박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크리스천 대학인 베데스다 대학교의 학부 과정인 지구과학 강연을 시작 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 강사들은 베데스다 대학의 교양과목인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10년 가까이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미국과 한국은 물론 중국이나 아프



퍼듀한인장로교회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리카 등의 선교사들도 강의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 성경이 사실임이 왕성하게 전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유학생 탐사여행은 한국온누리교회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후원하며,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에 있는 학생과 배우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13년 7월 15일-17일(월-수) 출발은 오전 8시 LA 주님의 영광교회



- 경유지: 모하비 사막, 세도나,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 인도: 이재만 선교사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 참가 대상 및 참가비
 - 유학생 부부(1인당): \$100.00
 - 유학생 가족: \$320.00
- 신청 방법: 신청서를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빙하시대 탐사여행

빙하시대 탐사여행은 노아홍수와 빙하시대의 증거들을 통해 성경적 역사와 세계관을 갖추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투어와 달리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Valley뿐 아니라 120번 Tioga Pass를 통과하며 북미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 Sierra Nevada 산맥을 넘습니다. 이때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서 빙하에 의해 형성된 초지(Tuolumne meadows)의 산책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395번 도로를 만나 빙하시대의 발단인 거대 분화구 Crowley Lake와 해빙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Alabama Hills에 도달합니다. 각각의 경유지를 지날 때마다 그 경관뿐 아니라 이들의 의미를 들으며 성경적 시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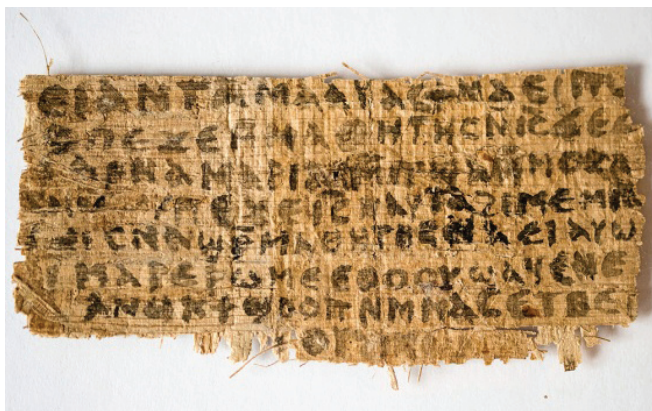
- 일정 : 2013년 6월 20-22일(목-토), 출발시간: 오전 10시
- 출발장소: ANC 온누리교회
- 경유지: 요세미티 국립공원(Valley와 Olmsted Point), Tuolumne 초지, Crowley Lake, Owens River 협곡, Alabama Hills, Whitney 산
- 인도: 이재만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제 1차 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 장면



예수의 아내?

작년에 국제콥트학회에서 하버드 대학의 케런 킹 교수는 최근 발견한 한 파피루스 문서에 예수가 “내 아내”로 언급한 구절이 있다는 발견을 발표했다. 꽤나 충격적이고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보도된 이 건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혼



“내 아내”란 말이 적힌 파피루스 조각

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충격적일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이야기이다. 이미 수 년 전 우리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통해 비슷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알고 있다. 예수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주장,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배우자라는 주장은 영지주의 복음서의 내용을 전하는 운동을 통해 오늘날은 상당히 대중화되어있는 주장이다. 작년의 발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방증이 발견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떠들썩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가 진본인지, 그 내용이 신뢰할만한 사실인지에 대해 따지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 이런 “혼란스런” 기사가 났을 때 기독교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이다.

첫째, 무엇이 검증된 사실이고 무엇이 가정인지를 물어야 한다. 언론은 사실과 가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란의 경우 사실은 무엇인가? 사실은 한 골동품점에서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내 아내”라는 구절과 “내 제자가 될만하다”는 구절이 써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 사실이 어떻게 “예수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여기에는 많은 가정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고 있다. 1) 이 파피루스 조각은 진품이다. 즉 누군가 2000년 전의 파피루스 조각인 양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가정이다. 2) 진품임을 가정할 때, 이 파피루스 조각에 언급되고 있는 말하는 이가 예수라는 가정이다. 3) 이 조각이 진품이고 화제의 인물이 예수라고 가정할 때, 이 조각에 글을 쓴 이가 신뢰할만한 인물이라는 가정이다.

당연하게도 이 세 가정들은 사실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파피루스 조각의 진품 여부는 아직도 논란거리이며 여전히 분석 중에 있다. 진품 여부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이상 어떤 의미 부여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파피루스 조각이 진품이라 해도 그 조각에 쓰여진 내용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에도 갈 길이 멀다. 아마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학계의 합의가 도출되는 일은 요원할 것이다. 더구나 동일한 내용의 보다 완전한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필자가 누군지는 영영 알 길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 발견을 발표한 킹 교수 본인도 적절하게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과학적 발표와 언론의 보도의 정확한 내용과 한계를 아는 데 더하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자신이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배우자가 있었다고 추측할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예수가 십자가 사건 이후 다시 살아나 아내와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재림을 부정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궁금하다. 영지주의 복음서들이 발견되어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셋째,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왔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신구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논란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역사이다. 우리는 오랜 역사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것은 늘 해석과 신념의 문제이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예수님 사후 몇 십 년 안에 쓰였고, 초대 교회에서 오래도록 읽히다가 2세기 후에 정경으로 선언되었다. 정경으로 선언되는 과정에서 교부들 간에 토론이 있었고, 일부는 이단으로 결정되는 일들도 있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성경의 정경화는 (더러운) 정치적인 투쟁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견해이다. 백보 양보해서 “여러 자료들로 봤을 때 더 그럴듯한 견해”라고 해도 여전히 견해이다. 사실과 견해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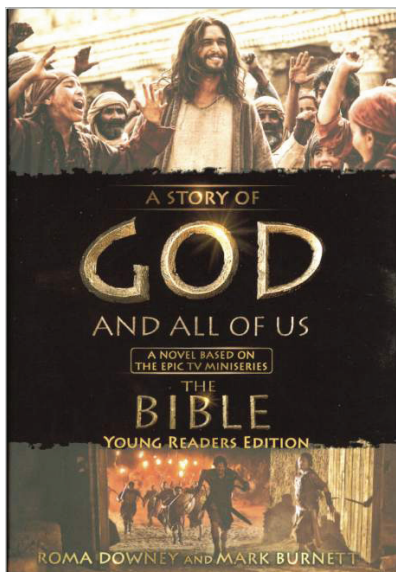
오늘날의 성경이 인간들의 집단적 결정을 포함한 정경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성경의 절대성을 훼손하는가? 여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성경은 견해의 홍수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지위를 조금씩 잃고 말 것이다. 반면 이 정경화의 과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셨다는 생각이 든다면 성경은 여전히 생명의 책으로 남아 있다. 창세 이후 이 세상 일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난 적이 있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흠도 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다고 노래하였다 (시편 12:6). 오늘날 성경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는 시대에서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들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정, 견해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성경은 무어라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안다면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사실이 아닌 어떤 것도 성경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게 하지 말라.



최태현 박사
행정학

The Bible is True



미국의 국제 케이블 방송매체인 히스토리(The History Channel)가 3월 3일부터 주일마다 5주간에 걸쳐 성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방송은 “성경이 사실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힐 것이다. 이번 방송 시리즈는 『Touched by an Angel』이라는 드라마의 여배우인 로마 다우니(Roma Downey)와 그의 남편인 마크 버넷(Mark Burnett)이 제작했는데, 이들은 전부터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주제에서도 성경의 역사성과 정확성에 대한 견해로 접근한다.

인터뷰에서 여러 저널리스트가 이 부부가 성경을 허구로 믿는지 우화로 믿는지 또는 역사적 사실로 믿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내용 하나만 있을 것입니

다. 당신은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한 저널리스트가 회의적인 말투로 성경이 실제로 아담과 하와, 노아 방주, 그리고 요나와 “대형 물고기”를 믿을 수 있도록 쓰여 있는지를 물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의론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전 지구적인 홍수를 경험한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으며,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 3일이나 살아있었을까? 가장 분명하고 쉬운 대답은 바로 예수님의 답변 속에 있다. 회의적인 저널리스트의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여러 답변들이 있다.

신적 영감

성경은 한 저자만이 존재한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성령님은 책을 쓴 각 사람이 각자의 스타일로 기록하도록 인도하셨고 계시를 주셨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신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막 12:36).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아셨다.

초자연적인 창조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사건과 창세기 2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관해서 이 두 부분의 내용과 함께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 19:4-5).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되었다.

전 지구적인 창세기 홍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홍수 사건처럼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7-39).

요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사건에 빗대어 말씀하셨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마 12:40).

성경의 사실성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일까? 첫째로, 수많은 공격에도 성경이 항상 승리했음을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둘째로는, 조롱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마 8:38)

Randy J. Guliuzza 의사, 저자, ICR 강사 | 번역: 조희천

3쪽(생명에 대하여)에서 이어지는 글

조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전혀 반대로 말한다.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며,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롬 8:21, 22). 이들의 피흘림과 고통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죄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그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역시 생명이 들어오고(入) 떠나게(出) 된 창조와 타락의 역사가 기록된 창세기다.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공간 속에 일어났던 실재 사건의 기록으로 받아들이는 때 복음의 중심에 서있는 생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랑학교 탐사여행

10/22-10/27, 2012

하루하루 강의를 듣고,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 그 전에 있던 생각들은 온 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마음 가운데에는 감동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 목회하시는 아버지께서 창조과학을 아시게 된다면 사역하시는 가운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예지/ 11학년

이제는 어느 정도 진화론을 알 것 같고 창조론이 왜 맞는지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 박예진

일반학교에 다니는 진화론을 믿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려겠습니다. - 정의진/10 학년

너무 감동이었고 감사했습니다. ... 하나님이 지금도 제 마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주님을 위해 제가 그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확신도 서게 되었습니다. - 최지은/ 11 학년

여기 오기 전 선교사님 팬이 너무 많길래 왜 저렇게 좋아하지?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돼버렸네요. - 송다원/ 10 학년

종교는 과학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바로 창세기가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것... 평소애 가지고 있던 의문점들도 창조과학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 김찬양

예수님이 눈 먼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제 마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진실된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요요. ... 지금껏 그렇게 자세히 창조를 가르쳐 주신 분을 선교사님이 처음입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할 때 늘 마음속에는 이번 탐사여행이 늘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 김가은

비록 심판의 흔적이라는 것이 슬펐지만 ... 정말 처음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 김다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뜻 안에서 정말 귀중하고 값진 그런 기회이자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쓰기 쉽고 편한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받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너무 무거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 정선우/ 음악교사

믿을 수 밖에 없는 창조의 증거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받은 지식, 지혜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 박준현/ 11 학년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물론 믿었고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의심들이 있었죠. 하지만 창조과학을 배우게 되면서 그런 의심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 진화론이 틀렸다는 증거와 창조가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하나 둘씩 배울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 박인혁

눈으로 보기 전이라서 의심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보고 설명 듣고 하면서 정말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이었고, ... - 김유림/ 8 학년

재미 없을 줄 알았는데 배우면 배우수록 재미있어지고 지구의 연대측정과 화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화석도 처음 만져보고 좋은 교육 한 것 같아요. 이런 허무한 진화론을 믿는지도 이해가 안가요. - 차예찬/ 8 학년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안 맞는데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이나 여러 측정법 같은 것들은 딱딱 맞아 떨어질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 배웠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란 걸 알게 되고 그것들을 비우고 진짜를 채워 넣으니 마음속으로나 머릿속으로 나 든든해진 것 같아요. - 김성경

저는 2001년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 예전 창조과학 강의를 들었던 것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11년 후에 그 감격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더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무엇보다도 생생하게 배운 것 같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 기도하며 열심히 아이들 잘 가르치겠습니다. - 김태우/ 교사

저도 선교사님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 10월 29일은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기 오는 걸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온 걸 잘한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약간 막혀있던 부분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 유주현

선교사님 짱 좋아요. 비록 제가 가끔 강의시간에 졸긴 했어도 엄청 열심히 들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과 과학자들이 연구한 데이터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을 땐 진짜 소름 돋고 감동적이었어요. ... 선교사님 팬 클럽 있으면 가입할 정도로 팬 땀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이유원

선교사님의 강의 듣기 전엔 사실 진화론을 믿고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숭이=사람 이란 것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전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진화론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말 밖에 안 나오네요. 저는 커서 반드시 교수님 만나러 하늘로 갈 겁니다. ... 진화론이 아닌, 영원히 창조론을 믿습니다 - 박주영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 4/12 남가주주님의교회 경로대학 (최우성), CA
- 4/13 산호세 새소망 교회(이재만)
- 4/15-17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침례교 국내선교부), 이재만
- 4/19 남가주주님의교회 경로대학 샌디에고 창조박물관 견학(최우성), CA
- 4/20 산호세 새소망 교회(이재만)
- 4/20 Fairfax Korean Church, Fairfax, VA(김선욱)
- 4/21 엘바인온누리교회 (이재만)

- 4/29-5/3 예수전도단 DTS (이재만), CA
- 5/6-7 신학생 김중 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CA
- 5/10-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 동산교회), 이재만
- 5/12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5/17-23 창조과학 탐사여행 (성남 성안교회), 이재만
- 5/19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5/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 5/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E.M. 김선욱
- 5/26 LA 온누리교회 (이재만)
- 5/26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 5/27-30 창조과학 탐사여행 (수원노회 수기시찰 목회자), 이재만
- 5/31-6/2 Denver Korean Church, Denver, CO.(김선욱)

- 6/2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 6/3-6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이재만
- 6/8 순회선교단 미주지부 (최우성), CA
- 6/10-12 순복음 라스베이거스 교회 (이재만), CA
- 6/20-22 빙하시대 탐사여행 (개인모집), 이재만
- 6/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주님의빛교회), 최우성
- 6/24-27 빙하시대 탐사여행 (뉴욕 목회자 협의회), 최우성
- 6/24-27 창조과학 탐사여행 (밴쿠버 성산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213-381-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